

다음 주 중국 수출이 관건

Quant / Strategist
변준호

02) 3787-2459

ymaezono@hmcib.com

두 중국 PMI 혼조, 하지만 시장은 차이신 PMI를 반영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가 부진했다. 관영 PMI는 49.7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소폭 개선됐으나 차이신 제조업 PMI는 48.2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다. 문제는 두 PMI가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인데 이는 시장 측면에서 중국 경기의 점진적 반등 기대감이 재차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증시는 관영 PMI보다는 차이신 PMI에 더 민감하게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이 커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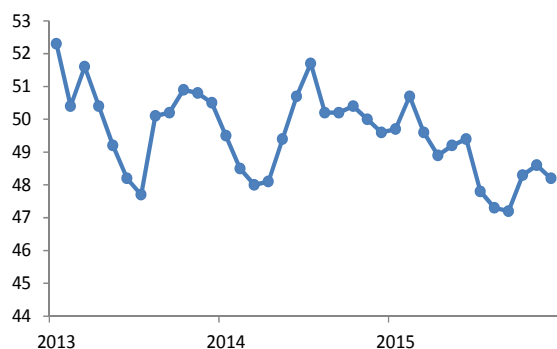
중국 PMI 부진은 안도렐리 지속성 떨어뜨려

지난 달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이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시장은 안도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이벤트 재료 소멸과 미국 지표 부진으로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명분이 약화되며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중국 PMI 부진으로 위안화 약세의 영향에 따른 원화 약세 동조 가능성이 높아지며 수급 개선 효과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다음주 발표될 중국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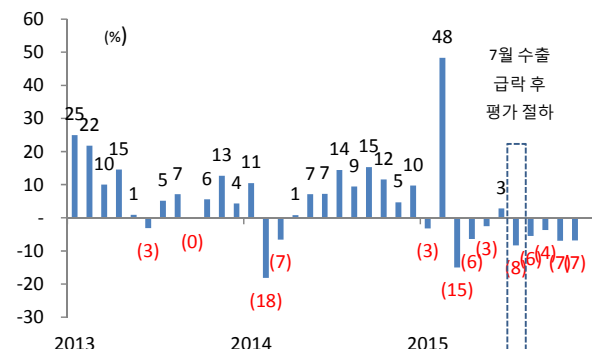
전일 상해 지수 낙폭이 다소 재료에 비해 과도하고 국내 증시 역시 급락 현상이 동조화된 측면이 있으나 차이신 PMI의 하락 전환에 따른センチメント 약화는 단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향후 시장이 재차 안정을 찾기 위한 변수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8일 밤 발표될 미국 12월 고용 지표와 13일 발표될 중국 수출이다. 12월 미국 고용 지표는 11월에 비해 다소 호조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와 같이 다소 부진한 지표 발표가 오히려 1분기 추가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키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난 8월 위안화 평가 절하의 시발점이 7월 수출 급락이었음을 상기해 볼 때, 중국의 12월 수출이 비교적 양호하게 확인된다면 위안화 추가 약세 우려는 완화될 전망이다. 11월 수출은 -6.8%, 12월 수출 예상치는 -6.9%이다. 위안화가 최근 2개월 꾸준히 상승해 기술적 반락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지표 호조 및 정부의 코멘트에 따라 약세 추이가 둔화될 수 있는 국면이다.

〈그림1〉 중국 12월 차이신 PMI, 3개월 만에 하락 전환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그림2〉 중국 수출 YoY 추이



자료: Bloomberg, HMC투자증권 주: 달러 기준

▶ Compliance Note

-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재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위아와 계열사관계가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본 조사항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